

유아기 손자녀를 둔 조모의 역할유형과 관련 변인들 :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모-손자녀 접촉 정도 및 조모-모 친밀감\*

Types of Grandmothers with Preschool-Aged Grandchildren and Its Correlates :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ontacts between Grandmothers and Grandchildren,  
and Closeness between Grandmothers and Mothers\*

김재희(Jae-Hee Kim)<sup>1)</sup>

도현심(Hyun-Sim Doh)<sup>2)</sup>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role types as they pertain to paternal and maternal grandmothers based on four role dimensions. To this end, a sample of 416 mothers of preschoolers was used. This study also examined correlates of and differences in the type of grandparents in terms of paternal and maternal types of grandmothers. Data were analyzed by K-means clustering, Chi-square, and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Grandmothers were classified into five distinct groups : influential, supportive, authority-oriented, passive, and detached types. Maternal grandmothers seemed to be relatively more involved with their grandchildren than paternal ones. The type of grandmothers varied as a function of socioeconomic status, the number of grandchildren, and geographical proximity for paternal grandmothers, and mothers' employment status and the closeness between grandmothers and mothers for maternal grandmothers. The results imply that grandmothers are currently becoming more active in their grandchildren's lives and that kinship in Korean society tends to lean to the maternal side.

**Key Words** : 조모의 역할유형(the type of grandmother), 친조모와 외조모(paternal and maternal grandmothers), 조모-손자녀 접촉 정도(contacts between grandmothers and grandchildren), 조모-모 친밀감(closeness between grandmothers and mothers).

\* 본 논문은 2010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sup>1)</sup>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박사과정

<sup>2)</sup>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yun-Sim Doh,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20-750, Korea  
E-mail : simdoh@ewha.ac.kr

## I. 서 론

기혼여성의 취업 증가율에 비해 질 높은 보육 시설이 부족하고 미비함으로 인해 손자녀 보육에 대한 조부모의 참여가 증가되면서(김종숙, 2002; 배지희·노상경·권경숙, 2008), 최근 들어 조부모의 역할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통계청 조사(2005)에 의하면 12세 이하 아동의 주간 보육 상태는 조부모가 보살피는 경우(5.4%)가 부모보육(41.8%)과 학원에 의한 보육(16.7%) 다음으로 나타났고, 조부모가 가끔이라도 돌보는 경우는 전체의 8.8%를 차지하여, 2000년도의 조사 결과보다 1.4%가 증가하였다. 이는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조부모가 손자녀의 보육을 담당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가족의 어려움에 도움을 제공하려는 가족 결속적이고 친척관계를 유지하려는 우리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노인층의 활발한 사회활동과 젊음 지향주의와 같은 의식변화에 의해 조부모의 전통적인 역할을 회피하고 축소화하는 대조적인 양상도 존재한다. 이처럼 조부모는 손자녀를 보살피며 성인 자녀를 보다 적극적으로 돕거나 혹은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개인의 성향, 신념, 사회·문화적 차이 등에 따라 그 역할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조부모 역할유형의 분류는 1960년대 초 미국 사회에서 새롭게 바뀌는 조부모의 모습을 전통적인 역할을 하는 ‘공식적인 형’, 손자녀와 놀아주면서 만족을 찾는 ‘기쁨 추구형’, 손자녀의 보육자 역할을 하는 ‘대리부모형’, 가족 내의 전통을 전수하는 ‘지혜 원천형’, 공식적인 역할만 하는 ‘원거리 부모형’으로 구분한 Neugarten과 Weinstein(1964)에 기초한다. 그 후, 이를 근거로 하여 Cherlin과 Furstenberg(1985)가 부모의 조부

모에 대한 영향력, 서로 주고받는 서비스 교환, 부모로서의 행동, 조부모 역할에 대한 동기에 따라 적극적(즉, 영향적, 권위지향적, 지지적), 분리적 및 수동적 역할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역할유형 분류는 지속적으로 많은 연구들에 의해 인용되어 왔다. 그 중 Mueller, Wilhelm과 Elder(2002)는 조부모-손자녀 간 접촉정도, 교환되는 서비스로서 간주될 수 있는 공유활동, 도움, 손자녀와의 친밀감, 조부모로서의 사회적인 측면이나 부모로서의 역할 행동을 의미할 수 있는 권위적 행동 등의 역할들을 기준으로 하여 조부모의 유형을 영향적(Influential), 분리적(Detached), 수동적(Passive), 권위지향적(Authority-oriented) 및 지지적(Supportive)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영향적 유형은 다양한 활동을 하며 손자녀에게 친밀감을 유지하고 보육적인 역할과 때로는 훈계를 하는 조부모를, 분리적 유형은 모든 조부모 역할을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조부모를, 수동적 유형은 손자녀와 적극적인 활동을 하거나 보육을 제공하는 등 부모 대신의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손자녀를 만났을 때 친밀감을 표현하고 예의를 알려주며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부모를 의미한다. 또한, 권위지향적 유형은 손자녀에게 예의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훈육하는 권위적 역할을 주로 수행하며, 지지적 유형은 영향적 유형과 비슷하게 적극적이지만 권위적 역할을 덜 하는 경우이다.

유아기의 손자녀를 연구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는 조모가 손자녀에게 주로 많이 하는 활동목록을 이용하여 조모의 역할을 양육자, 교육자, 보호자, 위안자 등의 역할로 분류하였는데(박화윤·이영숙, 1999; 이영숙·박화윤, 2000), 이러한 구분은 조부모와 면담하고 가정방문하여 관찰한 질적 연구(김은주·서영희, 2007)에서도 유사하게 보고되었다. 이 외에도, 조모의 역할을

조모와 손자녀 간 접촉양상과 조모의 역할 수행 내용에 따라 대리모, 훈계자, 가계역사와 성역할 조언자, 물질적 제공자, 손자녀 지지자, 생활간섭자 등으로 분류한 연구결과(서동인, 1989)도 발견된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은, 조모의 역할을 주로 부모를 대신하는 보육, 훈계 혹은 권위, 친밀감 혹은 함께하는 활동을 통한 정서적 지지 등과 같은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조부모의 역할을 요인 분석을 통해 몇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는 데 그치는 경향이 있다. 즉, 이러한 차원들을 기초로 조모의 역할유형을 분류한 연구는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초반 이후로 조모 역할을 주제로 한 연구는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와 더불어 많은 선행 연구들은 친조부모와 외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 먼저 국외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외조부모는 참여적, 영향적, 지지적이며 손자녀와 강한 관계를 갖고 있고 손자녀와의 관계 질이 높았다(Chan & Elder, 2000; Gray, Mission, & Hayes, 2005; Mueller & Elder, 2003; Roberto & Stores, 1992). 즉, 외조부모는 손자녀와 함께 활동을 많이 하고 손자녀와 친밀하며 접촉을 많이 하고 도움을 많이 주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Mueller & Elder, 2003). 국내 연구들에서도 친조부모-외조부모간 차이가 보고되고 있다. 친조모는 손자녀에게 가문의 소속감을 갖게 하고, 생의 철학을 조언하거나, 형제간 우애를 강조하고, 예의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반면, 외조모는 손자녀를 지지하고 부모를 대신하여 보육, 양육의 역할을 하며, 손자녀의 생활에 간섭을 하였다(서동인 · 유영주, 1991). 또한 손자녀는 친조부모를 더 자주 만나고 있었으며(박의순 · 조병은, 1990; 서동인, 1996), 어머니는 친조부모가 손자녀를 지지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손자녀들은 친조모 보다 외조모에 대해 더 강한 친밀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동인, 1996). 이상과 같이 고찰한 연구결과를 정리해보면, 친조모와 외조모의 손자녀에 대한 역할수행 내용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 내용을 바탕으로 분류된 조모의 역할유형에서도 친조모와 외조모 간의 차이가 발견되리라 가정된다.

조부모의 건강, 교육수준, 경제력이 변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특히 어머니의 취업 증가, 자녀수 감소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변화함에 따라서 조부모의 손자녀에 대한 역할은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어머니의 연령이 낮고 취업모일수록 조부모의 손자녀에 대한 보육 역할은 증가되었으며(Fergusson, Maughan, & Golding, 2008), 조부모는 유아기 손자녀에게 양육적인 역할과 책 읽어주기, 공부 가르치기 등의 교육적인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하였다(박화윤 · 이영숙, 1999). 어머니의 특성 이외에도 조부모 자신이 가진 특성에 따라 역할이 달라질 수 있는데, 조부모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손자녀와 접촉하는 비율은 증가하며 좀 더 재미위주의 활동을 하게 되고 손자녀에 대한 개입이 증가하였다(Hayslip, Henderson, & Shore, 2003; Poelmann, 2001; Roberto & Stores, 1992). 또한, 조부모가 건강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손자녀와의 접촉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는가 하면(Silverstein & Marengo, 2001), 조부모의 학력이나 연령은 유아기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역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들(박화윤 · 이영숙, 1999; 서동인, 1989)도 보고되고 있어 그 결과가 비일관적이다.

또한, 조부모의 역할은 거주지의 근접성, 접촉 빈도 및 손자녀 수 등과 같은 조부모-손자녀 접촉 정도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국외 연구의 경

우 조부모와 손자녀의 거주기간 근접성은 조부모가 손자녀와 의미 있는 활동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수행할 접촉의 기회를 높였으며(Mueller & Elder, 2003; Poelmann, 2001; Silverstein & Marengo, 2001), 세대 간의 질적 관계를 잠재적으로 발달시켰다(Kemp, 2003). 특히, 조부모는 가까이 거주하는 손자녀를 가장 좋아하는 손자녀로 지목하였고, 그 손자녀를 돌봐주고 여가 혹은 문화 활동을 주로 함께 하였다(Bernal & Anunciabay, 2008). 국내 연구에서는 조부모와 손자녀 간 접촉의 빈도가 높아질수록 조부모는 양육자, 교육자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박화운 · 이영숙, 1999).

조부모와 어머니간의 친밀감 또한 조부모의 역할과 관련될 수 있다. 세대 간의 애착관계는 세대를 걸쳐 안정적으로 전이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조모와 중간세대인 어머니간 관계는 조모와 손자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중요한 변인이다(Connor, 2006). 다시 말하면, 부모는 조부모-손자녀 관계를 격려하거나 약하게 만드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조부모-부모 관계의 질은 세대 간 결속의 중요한 열쇠가 되므로(Fergusson et al., 2008), 양자 간의 관계가 좋을수록 부모가 조부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조부모의 손자녀에 대한 개입을 허락하기 때문에 조부모는 영향적이고 권위중심적이기 쉽다(한정란 · 김귀자, 2003; Mueller et al., 2002). 또한, 부모세대의 어린 시절 경험은 자녀에게 반영되기도 하고 세대 간의 관계는 주로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머니의 외조모와의 관계는 친조모와의 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더 친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Mueller & Elder, 2003; Mueller et al., 2002). 실제로, 어머니의 조모에 대한 친밀감은 친조모와 외조모 간에 차이가 있어, 어머니는 친조모보다

외조모에게 보다 많은 친밀감을 보이며 외조모를 대하는 태도가 더 좋은 경향을 보였다(박의순 · 조병은, 1990).

조부모가 수행하는 역할의 종류 및 정도는 개인마다 다양하고, 이는 다양한 역할유형을 유도할 것이다. 특히 유아기는 조부모-손자녀 간 상호작용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조부모-손자녀 관계에서 부모의 영향이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주양육자인 어머니를 기준으로 모계와 친계간 차이의 가능성을 가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유아기 손자녀를 둔 경우 조부모의 보육적 활동과 애정적 보살핌이 더욱 두드러져 조부보다는 조모가 더 많이 손자녀와 상호작용한다는 연구결과(박화운 · 이영숙, 1999)에 근거하여 조모의 역할에 초점을 두었다. 조모는 또한 친족관계를 유지하는 데 책임감을 갖고 있는 여성적 역할에 의해 조부모 역할을 좀 더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Reitzes & Mutran, 2004). 요약하면, 본 연구는 친조모와 외조모가 손자녀에게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어떠한 역할유형으로 분류되는지를 비롯하여 조모 역할유형의 분포가 친조모와 외조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으며,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모-손자녀 접촉 정도, 조모-모 친밀감이 친조모 및 외조모의 역할유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친조모 및 외조모의 역할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 <연구문제 2> 조모의 역할유형 분포는 친조모와 외조모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사회인구학적 특성(즉, 모의 취업여부, 조모의 연령, 건강수준, 교육수준, 경제수준 및 조부의 생존여부), 조모-손자녀 접촉 정도(즉, 거주지

의 근접성, 조모-손자녀 접촉 빈도 및 손자녀의 수), 그리고 조모-모 친밀감은 친조모 및 외조모의 역할유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전업주부이었다.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300-400만원 미만과 400-500만원 미만은 각각 19.0%와 19.2%로 비슷한 비율이었으며, 500-600만원 미만은 25.1%, 600-700만원 미만은 7.9%, 700-1000만원 미만은 13.9%이었다.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시 및 경기도 지역의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기 자녀를 둔 416명의 어머니들이다.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30-39세가 345명으로 대부분(82.9%)을 차지하였고, 교육수준은 69%가 대학교 졸업 이상이었으며, 전체의 61.1%가

조모의 연령분포는 친조모와 외조모가 각각 46-91세( $M: 66$ 세,  $SD: 6.5$ )와 46-93세( $M: 64$ 세,  $SD: 6.2$ )이었으며, 친조모와 외조모에 대해 어머니들 가운데 각각 70.7%와 71.2%가 조모의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친조모는 손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7.5%로 외조모보다(4.8%) 높았으며, 30분 이내의 단거리 거주 비율은 외조모가 33.7%로 친조모보다(27.2%) 높았다. 조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조모-손자녀 접촉 정도는 표 2와 같다.

<표 1>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 = 416)

변인	빈도(%)	변인	빈도(%)
<b>연령</b>		<b>교육수준</b>	
25-29세	7( 1.7)	고등학교 중퇴, 졸업	46(11.1)
30-39세	345(82.9)	전문대졸업, 대학교 중퇴	83(19.9)
40-49세	62(14.9)	대학교졸업	243(58.4)
50세 이상	1( 0.2)	대학원 이상	44(10.6)
<b>교육수준</b>		<b>취업여부</b>	
고등학교 중퇴, 졸업	46(11.1)	취업	162(38.9)
전문대졸업, 대학교 중퇴	83(19.9)	비취업	254(61.1)
대학교졸업	243(58.4)		
대학원 이상	44(10.6)		
<b>직업</b>		<b>가정의 월 평균 수입</b>	
무직, 가정주부	254(61.1)	200만원 미만	32( 7.7)
노동직	0(0)	200-299만원	0(0)
생산감독 및 서비스직	4( 0.9)	300-399만원	79(19.0)
자영업 및 일반판매직	18( 4.3)	400-499만원	80(19.2)
일반사무직, 보안업무	13( 3.1)	500-599만원	104(25.1)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	83(20.0)	600-699만원	33( 7.9)
전문직	23( 5.5)	700-999만원	58(13.9)
기업주, 고위관리직	3( 0.7)	1000만원 이상	30( 7.2)
기타	18( 4.3)		

<표 2> 조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조모-손자녀 접촉 정도 (N = 416, 괄호 안은 %)

변인	친조모	외조모
<b>조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b>		
<b>조부의 생존여부</b>		
유	303(72.8)	317(76.2)
무	112(26.9)	98(23.6)
무응답	1( 0.2)	1( 0.2)
<b>조모의 연령</b>		
45-54세	6( 1.4)	16( 3.8)
55-64세	164(39.4)	232(55.8)
65-74세	202(48.6)	152(36.5)
75-84세	41( 9.9)	13( 3.1)
85-94세	3( 0.7)	3( 0.7)
<b>건강상태</b>		
매우 나쁨	5 (1.2)	4( 1.0)
나쁨 편	78(18.7)	81(19.5)
좋은 편	294(70.7)	296(71.2)
매우 좋음	39( 9.4)	35( 8.4)
<b>교육정도</b>		
무학	30( 7.2)	18( 4.3)
초등학교 중퇴, 졸업	118(28.4)	110(26.4)
중학교 중퇴, 졸업	111(26.7)	98(23.6)
고등학교 중퇴, 졸업	116(27.9)	143(34.4)
전문대 졸업 이상	41( 9.8)	47(11.3)
<b>경제적 수준</b>		
나쁨 편이거나 매우 나쁨	45(10.8)	32( 7.7)
보통	239(57.5)	238(57.2)
좋은 편이거나 매우 좋음	132(31.7)	146(35.1)
<b>조모-손자녀 접촉 정도</b>		
<b>거주지의 근접성<sup>주</sup></b>		
동거	31( 7.5)	20( 4.8)
30분 이내	113(27.2)	140(33.7)
30분-2시간 미만	133(32.0)	127(30.6)
2시간 이상	139(33.4)	129(31.0)
<b>조모-손자녀 접촉 빈도</b>		
동거	31( 7.5)	20( 4.8)
거의 매일	16( 3.8)	42(10.1)
주 1-2회	65(15.6)	69(16.6)
월 1-2회	175(42.1)	159(38.2)
6개월 1-2회	110(26.5)	104(25.0)
1년 2회 미만	15( 3.6)	16( 3.9)
기타	4( 1.0)	6( 1.4)
<b>손자녀 수</b>		
없음	54(13.0)	85(20.4)
1-5명	281(67.5)	256(61.5)
6-10명	72(17.3)	64(15.4)
11-15명	8( 1.9)	9( 2.2)
16명 이상	1( 0.2)	2( 0.5)

주) 교통이 원활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승용차로 움직이는 시간임.

##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조모와 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조모-손자녀 접촉 정도를 조사하는 문항들을 비롯하여, 조모의 역할 척도와 조모-모 친밀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어머니에 의해 보고되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는 조모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취업여부 등 13개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조모-손자녀 접촉 정도는 거주지의 근접성, 조모-손자녀 접촉 빈도, 손자녀 수 등을 측정하는 3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조모의 역할 척도와 조모-모 친밀감 척도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1) 조모의 역할 척도

조모의 역할 척도는 Mueller와 동료들(2002), 서동인(1989), 이영숙·박화윤(2000)의 척도를 근거로 하여 주축분해와 직각회전 방식의 요인분석을 통해 완성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공유 활동(7문항), 보육(7문항), 친밀감(4문항), 권위(4문항) 등 총 네 개의 하위요인들(22문항)이 추출되었다. 조모의 역할 척도 설명 분산은 친조모와 외조모의 경우 각각 공유활동이 21.57%, 19.54%, 보육이 39.02%, 38.64%, 친밀감이 52.38%, 51.98%, 권위가 63.57%, 63.43%이었다. 문항의 예를 들면, 공유활동 요인은 ‘노래나 게임을 가르쳐 주신다’, 친밀감 요인은 ‘아이를 자주 안아주거나 업어주신다’, 보육 요인은 ‘밥이나 간식을 만들어 차려주신다’, 권위 요인은 ‘어른에 대한 예의를 알려주신다’와 같이 조모의 역할을 묻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0점(거의 그렇지 않다)부터 3점(매우 그렇다)으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조모가 손자녀에게 각 요인에 해당되는 역할을 많이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유 활동, 친밀감, 보육 및 권위 요인 등 하위요

인들의 Cronbach's  $\alpha$ 값을 살펴보면, 친조모의 경우는 각각 .89, .86, .94, .89이었으며, 외조모의 경우는 각각 .90, .86, .92, .90이었다.

## 2) 조모-모 친밀감 척도

조모와 어머니간의 친밀감은 Bengston(1973)이 개발한 긍정적 정서 지표(Positive Affect Index)를 역번역 과정을 거쳐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존경심, 이해심, 애정, 신뢰성, 공정함 등 5가지 측면(10문항)과 인생관의 유사성(1문항) 등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측면은 보고자인 어머니가 자신의 입장과 조모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반복적으로 답하는 2문항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존경심 측면의 경우 '나는 시어머니를 존경한다'와 '(내가 느끼기에) 시어머니는 나를 존중하신다'로 반복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1점(거의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으로 점수화하였으며, 자료 분석시 총점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M = 33$ ,  $SD = 4.1$ ) 평균 이상과 미만을 각각 친밀감이 높음과 낮음으로 구분하였다. Cronbach's  $\alpha$ 값은 친조모 .93, 외조모 .92 로 산출되었다.

##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49명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2009년 7월 22일부터 일주일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시 어려움이 발견되지 않아 문항의 수정 없이 본조사를 진행하였다. 본조사는 2009년 7-9월에 걸쳐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유치원(3기관)과 어린이 집(3기관)에서 교사를 통해 배부, 회수되었다. 배부된 800부 가운데 458부(58% 회수율)를 회수하였고, 예비조사에서 회수한 49부를 합하여 총 507부가 본 연구에 사용 가능하였다. 이 가운데 친조모와 외조모가 모두 생존하

는 416부만을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SPSS Program 16.0과 SAS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먼저 연구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주축 분해와 직각회전 방식을 적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조모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조모의 역할 척도의 신뢰성을 증가시켰고, 척도의 하위요인 별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이어서 비계층적 군집방법인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친조모와 외조모가 손자녀에게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어떤 군집으로 구분되는지를 알아보았다. 분산분석의 F값을 검정통계량으로 하여 유의미한 수준에서 군집들이 분류되는지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조모의 역할 분류를 위한 각 요인별 평균 점수를 표준화하여, 군집별 막대그래프를 통해 각 군집을 구성하고 있는 각 하위요인들, 즉 조모의 각 역할 정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분류된 5가지 친조모 및 외조모 역할유형의 구성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통한  $\chi^2$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모-손자녀 접촉 정도, 조모-모 친밀감 등 3가지 변인들이 조모의 역할유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항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친조모 및 외조모 역할유형의 분포

공유활동, 보육, 친밀감, 권위 등 조모 역할의 4가지 하위요인들을 이용하여 친조모와 외조모의 역할유형에 대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군집의 수를 2, 3, 4, 5가지로 지정하여 각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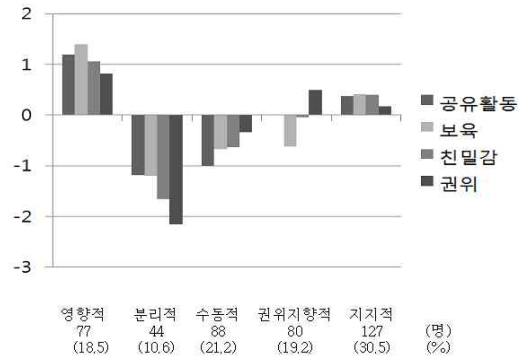
<표 3> 친조모 및 외조모의 역할에 따라 분류된 군집의 역할유형 (친조모/외조모: N = 416)

조모 역할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군집 5	F값
공유활동	1.20/0.89	-1.19/-1.60	-1.00/-0.74	0.01/-0.95	0.37/0.32	208.26***/180.61***
보육	1.40/1.06	-1.20/-1.72	-0.67/-1.12	-0.62/-0.74	0.42/0.13	288.50***/221.89***
친밀감	1.06/1.01	-1.66/-2.67	-0.63/-0.43	-0.04/-0.58	0.40/0.03	176.31***/232.97***
권위	0.82/0.67	-2.16/-2.46	-0.34/-1.80	0.50/0.02	0.17/0.15	241.60***/184.34***
N(%)	77(18.5)/ 116(27.9)	44(10.6)/ 18(4.3)	88(21.2)/ 32(7.7)	80(19.2)/ 103(24.8)	127(30.5)/ 147(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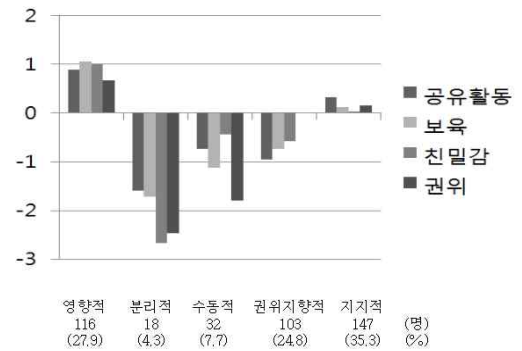
주 1) Z 평균값을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함.

주 2) 군집 1은 영향적, 군집 2는 분리적, 군집 3은 수동적, 군집 4는 권위지향적, 군집 5는 지지적 유형으로 명명됨. \*\*\*p < .001.

의 분석결과를 확인한 결과, 모두 유의한 수준에서 군집이 분류되었다. 이어서 유형을 이루는 하위요인들의 구성 내용이 군집마다 확연히 다르게 구분되는 군집수를 확인한 결과, 5가지 군집의 경우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군집수는 또한 각 역할유형의 특성을 영향적, 분리적, 수동적, 권위지향적, 지지적 유형으로 분류한 선행 연구들(Cherlin & Furstenberg, 1986; Harwood, 2001; Mueller et al., 2002)과도 유사하였다. 각 군집에 포함된 하위요인들의 특성과 이러한 연구들에 기초하여 조모의 역할유형을 영향적, 분리적, 수동적, 권위지향적, 지지적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영향적 유형’은 조모가 수행하는 4가지 역할 점수가 모두 높은 반면, ‘분리적 유형’은 모든 점수가 낮은 경우이다. ‘수동적 유형’은 손자녀와의 공유활동이나 보육 역할 점수는 낮지만 친밀감을 나타내거나 손자녀를 훈계하거나 예의를 가르치는 권위 역할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이다. ‘권위지향적 유형’은 다른 역할은 낮는데 반해 권위 역할 점수는 높은 경우이며, 마지막으로 ‘지지적 유형’은 영향적 유형과 비슷하게 역할 점수가 모두 높지만 권위 역할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이다. 친조모는 지지적, 수동적, 권위지향적, 영향



<그림 1> 친조모의 역할유형 분포



<그림 2> 외조모의 역할유형 분포

적, 분리적 유형 순으로, 외조모는 지지적, 영향적, 권위지향적, 수동적 및 분리적 유형 순으로 분포하였다(표 3). 또한, 친조모와 외조모의 역할



<표 4> 친조모와 외조모간 역할유형 분포의 차이 (단위 : 명, 괄호 안은 %)

조모의 역할유형	친조모	외조모	전체	
영향적	77(18.5)	116(27.9)	193(23.2)	$\chi^2 = 49.27^{***}$ $df = 4$
분리적	44(10.6)	18( 4.3)	62( 7.5)	
수동적	88(21.2)	32( 7.7)	120(14.4)	
권위지향적	80(19.2)	103(24.8)	183(22.0)	
지지적	127(30.5)	147(35.3)	274(32.9)	
전체	416(100)	416(100)	832(100)	

\*\*\* $p < .001$ .

유형별로 조모가 수행하는 역할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공유활동, 권위, 친밀감, 보육 등의 표준화된 평균점수( $M = 0$ ,  $SD = \pm 1$ )를 막대그래프로 제시하면 그림 1, 그림 2와 같다.

## 2. 친조모와 외조모간 역할유형 분포의 차이

앞서 분류된 조모의 역할유형이 친조모와 외조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통해  $\chi^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양자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chi^2 = 49.27$ ,  $p < .001$ ). 즉, 친조모는 지지적, 수동적, 권위적, 영향적, 분리적인 유형의 순으로, 외조모는 지지적, 영향적, 권위지향적, 수동적, 분리적 유형 순으로 분포되었다. 친조모는 외조모에 비해 분리적, 수동적 유형이 많은 반면, 외조모는 친조모에 비해 영향적, 권위지향적, 지지적 유형이 많았다(표 4).

## 3.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모-손자녀 접촉 정도, 그리고 조모-모 친밀감과 친조모 및 외조모의 역할유형간 관계

조모의 역할유형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다항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에 앞서, 변수선택법(forward selection method), 즉 변수를 하나씩 차례대로 입력해 나가며 설명력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나타난 변수만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조모의 역할유형에 대해 설명력이 있는 변인들로 구성된 모형을 알아내었다. 여기서, 각 변인에는 모의 교육수준과 취업 여부, 조모의 건강, 경제수준, 교육수준, 조부의 생존여부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거주지의 근접성, 조모-손자녀 접촉빈도, 손자녀 수를 포함한 조모-손자녀 접촉 정도, 그리고 조모-모 친밀

<표 5> 단일변수 모형 : 친조모

모 형	변수 설명력
<b>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b>	
교육수준	10.5
취업여부	15.6**
<b>친조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b>	
경제수준	15.9*
건강	
교육수준	34.2***
생존여부	5.5
<b>친조모-손자녀 접촉 정도</b>	
거주지의 근접성	39.1***
손자녀 수	12.8*
<b>친조모-모 친밀감</b>	
모의 친조모에 대한 친밀감	29.9***
친조모와 모의 인생관 유사성	27.6***

주) 음영은 설명력이 없는 단일변수임.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6> 단일변수 모형 : 외조모

모 형	변수 설명력
<b>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b>	
교육수준	11.9
취업여부	11.7*
<b>외조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b>	
경제수준	20.7**
건강	
교육수준	37.4***
생존여부	
<b>외조모-손자녀 접촉 정도</b>	
거주지의 근접성	25.4**
손자녀 수	9.5*
<b>외조모-모 친밀감</b>	
모의 조모에 대한 친밀감	32.9***
외조모와 모의 인생관 유사성	

주) 음영은 설명력이 없는 단일변수임.  
\* $p < .05$ . \*\* $p < .01$ . \*\*\* $p < .001$ .

감이 포함되었다 (표 1, 표 2 참고). 이러한 단일

변수들의 설명력을 친조모와 외조모로 나누어 제시하면 표 5, 표 6과 같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설명력이 높은 변인들로 2개씩, 3개씩 조합하여 가능도비(Likelihood Ratio)를 비교하며 적절한 변인들의 모형을 조사한 결과, 친조모의 역할유형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관련 변인들의 모형은 경제수준, 손자녀 수, 거주지의 근접성 등 세 가지 변인으로, 외조모의 경우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조모-모 친밀감 등 두 가지 변인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위와 같이 최종 결정된 변인들과 친조모 및 외조모의 역할유형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인 분리적 유형과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지지적 유형을 비교하고자 하는 기준 범주로 하여 다항적 로지스틱 분석을 하였다. 또한 다항적 로지스틱의 회귀분석에서는 각 변인마다 비교를 위한 기준 범주를 정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친조모의 경제수준의 경우

<표 7> 친조모의 역할유형과 관련된 변인들 : 분리적 유형과의 비교

구분	B				Exp(B)			
	영향적	수동적	권위 지향적	지지적	영향적	수동적	권위 지향적	지지적
<b>친조모의 경제수준</b>								
좋은 편이거나 매우 좋음	0.79**	0.25**	0.76**	0.15	2.20	1.28	2.14	1.16
보통	0.42	0.33	0.16	0.09	1.52	1.39	1.17	1.09
나쁜 편이거나 매우 나쁨	Ref.	Ref.	Ref.	Ref.	1.00	1.00	1.00	1.00
<b>거주지 근접성</b>								
동거	1.45**	-0.51	-0.40	0.23	4.28	0.60	0.67	1.26
30분 이내	-1.36***	-0.43	-0.43	-0.75**	0.26	0.65	0.65	0.47
30분-2시간 미만	-0.06	0.69*	0.29	0.24	0.94	2.00	1.34	1.28
2시간 이상	Ref.	Ref.	Ref.	Ref.	1.00	1.00	1.00	1.00
<b>손자녀 수</b>								
상수	-0.63	0.40	-0.10	-0.46	0.54	1.50	0.91	0.63
상수	1.51**	-0.19	0.53	1.88***	4.51	0.83	1.71	6.56
가능도비(LR)				102.01**				

주) Ref(Reference level)는 각 요인의 하위범주 중 기준이 되는 범주임.  
\* $p < .1$ . \*\* $p < .05$ . \*\*\* $p < .01$ .

<표 8> 친조모의 역할유형과 관련된 변인들 : 지지적 유형과의 비교

구분	B				Exp(B)			
	영향적	수동적	권위 지향적	지지적	영향적	수동적	권위 지향적	지지적
<b>친조모의 경제수준</b>								
좋은 편이거나 매우 좋음	0.64**	-0.15	0.10	0.61**	1.90	0.86	1.10	1.85
보통	0.33	-0.09	0.25	0.07	1.40	0.92	1.28	1.08
나쁜 편이거나 매우 나쁨	Ref.	Ref.	Ref.	Ref.	1.00	1.00	1.00	1.00
<b>거주지 근접성</b>								
동거	1.23***	-0.23	-0.73	-0.63	3.41	0.80	0.48	0.54
30분 이내	-0.62**	0.75**	0.32	0.32	0.54	2.11	1.37	1.37
30분-2시간 미만	-0.30	-0.24	0.45	0.05	0.74	0.78	1.57	1.05
2시간 이상	Ref.	Ref.	Ref.	Ref.	1.00	1.00	1.00	1.00
<b>손자녀 수</b>								
상수	-0.17	0.46	0.86***	0.36	0.85	1.58	2.37	1.44
상수	-0.38	-1.88***	-2.07***	-1.35***	0.69	0.15	0.13	0.26
가능도비(LR)	102.01**							

주) Ref(Reference level)는 각 요인의 하위범주 중 기준이 되는 범주임.

\* $p < .1$ . \*\* $p < .05$ . \*\*\* $p < .01$ .

‘매우 나쁨’과 ‘나쁜 편임’을, 거주지의 근접성은 친조모와 손자녀가 ‘2시간 이상의 거리에 거주하는 것’을 기준 수준(reference level)으로 정하였다. 또한, 손자녀 수의 경우 아동의 사촌형

제수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더미변수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반면, 외조모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취업모인 경우를, 조모와 모간의 친밀감은 평균(33점) 이상으로 높은 친밀감을 가진 경우를

<표 9> 외조모의 역할유형과 관련된 변인들 : 분리적 유형과의 비교

구분	B				Exp(B)			
	영향적	수동적	권위 지향형	지지적	영향적	수동적	권위 지향형	지지적
<b>모의 취업여부</b>								
취업	-0.10	-0.26	0.35	0.11	0.91	0.77	1.42	1.11
비취업	Ref.	Ref.	Ref.	Ref.	1.00	1.00	1.00	1.00
<b>외조모-모 친밀감</b>								
높음	0.99***	0.37	0.12	0.39	2.68	1.45	1.12	1.48
낮음	Ref.	Ref.	Ref.	Ref.	1.00	1.00	1.00	1.00
상수	1.64***	0.59*	1.67***	2.09***	5.13	1.81	5.29	8.10
가능도비(LR)	9.61**							

주 1) 외조모-모 친밀감의 평균은 33점임.

주 2) Ref(Reference level)는 각 요인의 하위범주 중 기준이 되는 범주임.

\* $p < .1$ . \*\* $p < .05$ . \*\*\* $p < .01$ .

<표 10> 외조모의 역할유형과 관련된 변인들 : 지지적 유형과의 비교

구분	B			Exp(B)				
	영향적	수동적	권위 지향형	지지적	영향적	수동적	권위 지향형	지지적
<b>모의 취업여부</b>								
취업	-0.21	-0.11	-0.37*	0.24*	0.81	0.90	0.69	1.28
비취업	Ref	Ref.	Ref.	Ref.	1.00	1.00	1.00	1.00
<b>외조모-모 친밀감</b>								
높음	.60***	-0.39	-0.02	-0.27**	1.81	0.68	0.98	0.76
낮음	Ref.	Ref.	Ref.	Ref.	1.00	1.00	1.00	1.00
상수	0.46***	-2.09***	-1.50***	-0.43***	0.63	0.12	0.22	0.65
가능도비(LR)	9.614**							

주 1) 외조모-모 친밀감의 평균은 33점임.

주 2) Ref(Reference level)는 각 요인의 하위범주 중 기준이 되는 범주임.

\* $p < .1$ . \*\* $p < .05$ . \*\*\* $p < .01$ .

기준 수준으로 정하였다. 그 결과, 친조모는 경제수준이 높고 동거할수록 손자녀에게 분리적이거나 지지적이기 보다는 영향적이거나 권위지향적이 되기 쉽고, 손자녀 수가 많을수록 지지적 유형보다는 수동적 유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다(표 7, 표 8). 외조모는 어머니가 취업모일 때 지지적이기 보다는 수동적이거나 권위지향적 유형이 될 가능성이 높았고, 조모와 어머니가 친밀할수록 영향적 혹은 지지적 유형에 속하는 경향이 있었다(표 9, 표 10).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손자녀를 둔 조모의 역할유형을 분류하고, 친조모와 외조모간에 역할유형간 분포에서 차이가 있는지와 조모 및 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모-손자녀 접촉 정도, 조모-모 친밀감이 친조모 및 외조모의 역할유형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모의 손자녀에 대한 공유 활동, 보육, 친밀감 및 권위 등 4가지 역할에 근거하여 분류된 조모의 역할유형은 영향적, 분리적, 수동적, 권위지향적, 지지적 유형 등 5가지이었다. 이러한 분류는 국외 연구결과들(Cherlin & Furstenberg, 1985; Mueller & Elder, 2003; Mueller et al., 2002)과 일치하였으며, 국내의 연구결과들(서동인, 1996; 이영숙·박화운, 2000)과도 유사하다. 국내 연구들에서는 조부모의 역할을 삶의 방향 제시 역할, 심리적 지지 역할, 권위자 역할, 손자녀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역할, 무간섭자의 역할, 가족의 근원 의식하는 역할 등으로, 혹은 양육자, 교육자, 보호자, 위안자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또한 현 우리나라 조모의 역할유형이 국외 연구들(Mueller & Elder, 2003; Mueller et al, 2002)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적극적, 분리적, 권위주의적 유형 등 3가지 유형(Cherlin & Furstenberg, 1985)에서 5가지 유형으로 보다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조부모의 역할유형이 특히 국외 연구들과 일치한 점은 조부모 역

할이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러한 결과는 조부모 역할에 대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어르신을 인생의 경험자로서 존경 받아야 하는 존재이면서 은퇴와 함께 물러나야 하는 존재, 뒤쳐지고 무력하고 신체적으로 약하고 생산성이 없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Gauthier, 2002). 반면에 현대 사회에서는 점차 수명이 연장되고, 노년기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조부모가 손자녀와 활발히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에너지와 시간이 증가되어 손자녀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영향적 유형, 여가생활을 함께 즐기며 친구 같은 지지적 유형 등과 같은 적극적 유형이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복잡하고 바쁜 현대사회의 특성에 의해 조부모의 역할을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분리적 유형 또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듯하다.

조모 역할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친조모는 지지적, 수동적, 권위지향적, 영향적, 분리적 유형의 순으로, 외조모는 지지적, 영향적, 권위지향적, 수동적, 분리적 유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자 모두 지지적 유형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반면, 분리적 유형은 가장 적은 분포를 보였다. 영향적, 권위지향적, 지지적 유형을 손자녀와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유형으로 고려한다면, 친조모와 외조모의 각각 68.2%와 88.0%가 이러한 유형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포 경향은 분리적 조부모 유형이 전체의 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지지적(23%), 수동적(19%), 영향적(17%), 권위지향적(13%) 유형의 순으로 분포되었던 미국의 연구결과(Mueller et al., 2002)와 대조적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조모는 친조모, 외조모와 상관없이 미국의 조부모보다 좀 더 적극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모만을 연구대상

으로 선정한 본 연구와 달리, Mueller와 동료들의 경우 조부모 연구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손자녀와의 상호작용이 적은 조부의 분리적 특성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친조모와 외조모의 경우 모두 권위지향적 유형보다 지지적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발견된 점은 인상적이다. 이는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한 본 연구의 경우와 다르지만 청소년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유형 중 지지 역할이 가장 커다란 설명력을 보였던 최근의 선행 연구결과(이영숙, 2004)와 일치한다. 반면에 조모들이 손자녀의 생활을 거의 간섭하지 않고 친구처럼 함께 놀아주는 심리적인 지지자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인생철학이나 형제간의 우애, 생활 습관 등의 교육적 역할에 초점을 두고 특히 훈계적 역할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서동인·유영주, 1991)와는 차이를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시대가 흐름에 따라 젊고 건강한 노인들이 증가되면서 조모가 수행하는 역할이 달라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 같다. 그러나 손자녀를 훈계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권위지향적인 조모는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임으로써, 과거의 교육적이고 훈계적인 조모 역할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조모의 역할유형은 친조모와 외조모간에 차이를 보여, 친조모는 외조모에 비해 분리적, 수동적 유형이 많은 반면, 외조모는 친조모에 비해 영향적, 권위지향적, 지지적 유형이 많았다. 이렇듯 외조모가 손자녀에게 적극적이라는 연구결과는 친조모의 역할 수행의 수준이 외조모보다 낮고 외조모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손자녀에게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연구결과들(서동인, 1996; 서동인·유영주, 1991)과 유사한 맥락이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친족관

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가족관계 내에서 어머니의 영향력은 강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박경란, 1994; 박의순·조병은, 1990) 어머니는 대체적으로 친조모보다는 자신의 친모인 손자녀의 외조모와 보다 친밀하고 밀착된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는 또한 외조모가 조모의 역할을 손자녀의 어머니인 성인자녀에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Gauthier, 2002), 딸의 자녀인 손자녀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 우리 사회에서 딸은 결혼 후에도 자신의 원가족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풍조의 일면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친족관계가 모계 중심적인 경향이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모-손자녀 접촉 및 조모-모 친밀감은 대체적으로 조모의 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그 관련성은 친조모와 외조모가 다르게 나타났다. 친조모의 경우 여러 요인들 중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조모의 경제수준, 조모와 손자녀의 거주거리의 근접성 및 손자녀 수 등 3가지이었다. 조모의 경제수준이 좋을수록 지지적 유형보다는 영향적, 권위지향적 유형이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역할 수행을 더 많이 하고 더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역할을 한다는 선행 연구결과들(이영숙, 2004; Thiele & Whelan, 2006)과 유사하다. 또한 친조모와 손자녀가 동거할 때 친조모는 영향적 유형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친조부모와 동거할 때 정서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된다는 선행 연구결과들(이영숙, 2004; 이용환·양승규·이영세, 2001)과 일치한다. 이에

반해, 동거는 하지 않지만 30분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면 분리적인 유형이, 조금 더 먼 거리에 거주할 경우에는 분리적 유형보다는 수동적 유형이 되기가 쉬웠다. 이러한 결과는 친조모의 경우 동거를 하지 않는 한 30분 이내의 가까운 거리 혹은 조금 더 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모두 소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손자녀가 많을수록 친조모는 좀 더 수동적이었는데, 이는 조모의 에너지와 시간과 같은 자원들이 손자녀 수에 의해 분산되어 각각의 손자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게 됨에 따라 적극적인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고 친밀감을 표현하는 역할만 주로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외조모의 유형은 모의 취업여부 및 조모-모 친밀감과 관련되어, 어머니가 취업을 하고 있을 때 수동적이기 보다는 지지적으로, 지지적이기 보다는 권위지향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어머니의 취업이 조부모의 보육역할과 교육적인 역할을 증가시킨다는 선행 연구결과들(박화윤·이영숙, 1999; Fergusson et al., 2008)과 일치한다. 또한, 성인 자녀의 취업으로 인해 손자녀를 키우는 외조모가 친조모에 비해 훨씬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연구결과(서동인·유영주, 1991)와도 유사하다. 또한, 어머니가 외조모와의 친밀감이 높을수록 외조모는 영향적 유형일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는 조모와 부모간의 관계가 좋을수록 부모가 조부모의 손자녀에 대한 개입을 허락하고 조부모-손자녀 관계를 촉진하여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영향력이 있으며 권위중심적일 수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들(한정란·김귀자, 2003; Mueller & Elder, 2003; Mueller et al., 2002; Robertson, 1976)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의 경우, 외조모는 손자녀와 접촉하는 기회가 증가되어 적극적 역할을 하기 쉽고, 특히 친구 같은 유

형보다는 손자녀의 예절을 가르치고 형제간 우애를 다독이는 식의 훈계적인 권위지향적 유형이 나타나기 쉬운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친조모와 외조모 모두 손자녀에게 적극적인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지지적 유형이 가장 많이 분포됨으로써, 이는 조모가 손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외조모는 모든 조부모 역할에서 친조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어머니가 취업할 경우 더욱 그러하였다. 이는 20여 년 전에 수행된 선행 연구결과(서동인·유영주, 1991)에서와 같이 현재에도 취업모의 경우 친조모보다는 외조모에게 보다 편안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만한 조부모-손자녀 관계를 통한 아동발달적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결과에서 두드러진 친조모와 외조모 역할간 불균형을 완충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손자녀로 하여금 외조모는 물론 친조모와도 보다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질 높은 조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조모-손자녀 관계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조부모-모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이 속한 가족체계의 질이 향상된, 보다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조모가 손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력에 관한 시사점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친조모와 외조모 모두 직접적인 접촉이 어렵다는 방법론적 이유로 조모의 손자녀에 대한 역할을 조모가 아닌 어머니가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친조모와 외조모의 역할 측정에 있어서 어머니의 조모에 대한 개인적 평가나 감정이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조모와 어머니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조모-손자녀 관계는 조모와 손자녀가, 조모-모 관계는 조모와 어머니 모두가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대상 연령인 유아기 시기에는 조부가 소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정하여 조부를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조모의 역할만으로 제한시키기보다는 조부까지 그 대상을 확장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조부모 역할유형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조부모 역할을 몇몇 차원들로만 구분하여 살펴본 선행 연구들(박화윤·이영숙, 1999; 이영숙·박화윤, 2000; Reynold, Wright, & Beale, 2003; Roberto & Store, 1992; Silverstein & Marengo, 2001)을 확대하여 공유 활동, 친밀감, 보육, 권위의 4가지 역할 차원에 따른 조모 역할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또한, 조모 역할유형의 분포뿐만 아니라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친조모와 외조모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친조모-손자녀 관계와 외조모-손자녀 관계 모두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해 손자녀를 키우는 조부모나 조손가족과 같이 조부모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제로 한 연구들이 매우 드문 현 시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의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은주·서영희(2007).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실체에 관한 질적 연구. *아동학회지*, 29(6), 175-192.

- 김종숙(2002). 현대사회의 가족변화와 조부모역할. **수원대학교 논문집**, 20, 1-11.
- 박경란(1994). 부모-조부모 관계의 질이 청소년기 손자녀-친조부모간의 유대관계에 미치는 영향-부산시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4(2), 74-89.
- 박의순·조병은(1990). 청년기 손자녀가 지각한 각 조부모와의 유대감. **가정학논집**, 2, 28-62.
- 박화윤·이영숙(1999). 유아기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역할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9(2), 21-41.
- 배지희·노상경·권경숙(2008). 조부모의 영유아기 손자녀 양육현황 및 양육지원에 대한 요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1), 379-410.
- 서동인(1989).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 손자녀와의 접촉과 조모의 역할수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45-60.
- 서동인(1996). 10대 자녀를 둔 모가 기대하는 조부모 역할과 손자녀역할 : 친조부모·외조부모에 따른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358-371.
- 서동인·유영주(1991).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의 심리적 친밀도. **아동학회지**, 12(2), 154-172.
- 이영숙(2004). 청소년기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3(5), 673-681.
- 이영숙·박화윤(2000). 유아기 손자녀가 기대하는 조부모의 역할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0(3), 211-232.
- 이용환·양승규·이영세(2001). 대학생이 인식하는 친·외조부모의 도움. **노인복지연구**, 가을호, 97-111.
- 한정란·김귀자(2003). 부모의 노인 및 조부모에 대한 태도와 자녀의 조부모에 대한 친밀감-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19, 61-82.
- 통계청(2005).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 Bengston, V. L., & Black, K. D. (1973). Solidarity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 four perspectives on theory development. Paper presented in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Toronto, Canada.
- Bernal, J. G., & Anuncibay, R. F. (2008). Intergenerational grandparent/ grandchild relations : The socioeducational role of grandparents. *Educational Gerontology*, 34(1), 67-88.
- Chan, C. G., & Elder, G. H., Jr. (2000). Matrilineal advantage in child-grandparent relations. *The Gerontologist*, 40, 179-190.
- Cherlin, A., & Furstenberg, F. F. (1986). *The new American grandparent : A place in the family, a life apart*. New York : Basic Books.
- Connor, S. (2006).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 Formation, disruption and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ttachment. *Australian Social Work*, 59(2), 172-184.
- Fergusson, E., Maughan, B., & Golding, J. (2008). Which children receive grandparental care and what effect does it hav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2), 161-169.
- Gauthier, A. (2002). The role of grandparents. *Current Sociology*, 50, 295-307.
- Gray, M., Mission, S., & Hayes, A. (2005). Young children and their grandparents.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72, 10-1.
- Harwood, J. (2001). Comparing grandchildren's and grandparents' stake in their relation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3(3), 195-210.
- Hayslip, B. Jr., Henderson, C. E., & Shore, R. J. (2003). The structure of grandparental role meaning.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0(1), 1-11.
- Kemp, C. L. (2003). The Social and demographic contours of contemporary grandparenthood : Mapping patterns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4(2), 187-208.
- Mueller, M. M., & Elder, G. H. Jr. (2003). Family contingencies across the generations : Grandparent-grandchild relationship in holistic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 404-417.
- Mueller, M. M., Wilhelm, B., & Elder, G. Jr. (2002). Variations in grandparenting. *Research on Aging*,



- 24 (3), 360-388.
- Neugarten, B. L., & Weinstein, K. K. (1964). The changing American grandpar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199-204.
- Poehlmann, J. (2001). Predictors of grandmother participation in a multigeneratio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3(4), 275-291.
- Reitzes, D. C., & Mutran, E. J. (2004). Grandparenthood : Factors influencing frequency of grandparent-grandchildren contact and grandparent rol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59(1), 9-16.
- Reynold, G. P., Wright, J. V., & Beale, B. (2003). The roles of grandparents in educating today's children. *Journal of Instructional Psychology*, 30, 316-326.
- Roberto, K. A., & Stores, J. (1992). Grandchildren and grandparents : roles, influences, and relationships. *International Journal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4(3), 227-239.
- Robertson, J. F. (1976). Significance of grandparents : Perceptions of young adult grandchildren. *The Gerontologist*, 16, 137-140.
- Silverstein, M., & Marengo, A. (2001). How American enact the grandparent role across the family life course. *Journal of Family Issues*, 22(4), 493-522.
- 
- 2010년 10월 27일 투고, 2011년 1월 14일 수정  
2011년 1월 19일 채택